

전남도-지역 국회의원 원팀 국고예산 확보 나서

서울서 예산정책 간담회

여수~남해 해저터널 등 예산 전력
COP28·의대 설립 등 현안 공조

전남도와 지역 국회의원이 전남 발전을 위한 내년 국고예산 확보와 정책 현안 해결에 원팀으로 총력전을 기울이기로 했다.

전남도는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에서 김영록 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김 지사를 비롯한 간부공무원과 민주당 전남도당 김승남 위원장, 김원아·주철현·김희재·소병철·서동용·신정훈·이개호·윤재갑·서삼석 국회의원 10명 전원이 함께했다.

전남도는 10월 시작될 국회 예산심의를 앞두고 지역 국회의원에게 정부예산안 반영 상황을 설명하고 국회에서 증액할 사업과 정책 현안을 소개했다.

국회 심의단계에서 반영할 사업은 33건이다. 주요 사업은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 ▲추포~비금 국도 2호선 연결도로 건설 ▲광양항 3~2단계 자동화 '컨' 부두 건설 ▲초강력 대형레이저 연구시설 구축(중액) ▲국립 심뇌혈관센터 설치(중액)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조성 ▲김지 전문생산단지 조성(중액)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 건립 등이다.

전남도는 또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해 ▲전라선 고속철도 ▲해상풍력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 개발 ▲광주~완도 2단계 고속도로 ▲국립난대수목원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컨싱턴호텔에서 열린 지역 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간담회에서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국회의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성 ▲다도해 갯벌 습지정원 조성 등이 예타 대상에 조기 선정되도록 요청했다.

주요 정책 현안도 협의한 뒤 전남도와 지역국회의원이 공조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논의한 주요 정책 현안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대한민국유치 국가역량 결집 ▲전남에 국립의과대학 설립 ▲해상풍력 제도 개선 및 인프라 구축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조성 ▲국가 첨단의료 복합단지 지정 ▲국가 연구개발 사업 선정 시 지역균형발전 지표 반영 등이다.

김 지사는 “올해 1조7830억 원 규모의 전라선 고

속철도, 국도·국지도 10지구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국가계획 반영과 함께 여수·순천사건특별법, 한국에너지공단법, 고창사랑 기부금법 제정, 2단계 재정분권 군특예산 지원 연장, 지역소멸 기금 조성 등 전남 발전을 위한 성과가 많았다”며 “이 자리에 계신 지역 국회의원들의 협조와 성원 덕분에”이라고 공을 돌렸다.

그러면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7조5000억원의 국고가 반영됐는데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증액·신규 반영과 함께 지역 발전의 성장동력이 될 전남 발전 핵심과제 32건, 지역 발전과제 25건이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승남 위원장 등 지역 국회의원들은 “전남 국회의원들이 원팀이 돼 국고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역 현안과 관련한 법령 제정 등 입법 활동과 전남 발전 정책과제도 대선공약으로 채택돼 도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전남도는 내년 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국회 상황실을 운영하고 각 정당 지도부를 비롯해 상임위, 여결위 등을 찾아 국비 확보의 당위성을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장록습지 생물다양성 광주시, 9일 탐사캠프

광주시는 “지난해 도심 속 첫 국가습지로 지정된 장록습지에서 ‘제1회 2021 장록국가습지 생물다양성 대탐사’를 10월 9일 비대면으로 개최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생물다양성탐사는 일반인 참가자들이 생태전문가와 함께 일정한 지역을 관찰하고 탐사해 생물분류군별 서식목록을 작성하는 과학 참여활동이다.

장록습지에 깃든 생명을 관찰하고 기록하며 지키기 위해 전문가 40명과 학생참가자 100명을 모집해 5개 분류군별로 팀을 구성했다.

이번 탐사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전문가들이 5개 분야 생물종분류군(식물, 곤충, 조류, 어류, 양서·파충·포유류)별로 장록습지 일대를 현장조사하고, 온라인공간에서 참가자들과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10월 8일까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장록국가습지 #생물다양성탐사)를 활용한 탐방사진을 첨부하거나 궁금한 점을 올리는 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다.

행사당일인 10월 9일에는 전문가가 2차에 걸쳐 탐사활동을 하고, 이후 온라인(ZOOM)에서 5개 분류군별로 전문가와 참가자들이 함께하는 이야기마당과 생물종목록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자세한 사항은 (사)숲해설가광주전남협회 홈페이지, 전화(062-223-3279) 등으로 확인 가능하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노사 상생 논의 광주상생일자리재단 출범

노동·경영계 등 20여명 발기인

광주시는 지난 30일 광주시청에서 광주상생일자리재단 발기인 대회를 개최했다. 발기인에는 이용섭 시장,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 장연주 광주시의원, 윤영현 광주경영자총협회 상

임부회장, 박재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등 각계 2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설립 취지문·정관 채택,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발기인들은 설립 취지문을 통해 ‘노동이 존중받고 기업하기 좋은 노사 상생 도시 실현’과 ‘상생 일자리 선도

도시 광주’의 비전을 갖고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광주상생일자리재단은 노사 상생 방안을 논의하고 노동 정책을 담당하는 노사정 합의 기구다.

시는 출연 기관인 재단 설립을 위해 지방공기업

평가원의 타당성 검토,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쳤다. 재단 설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 광주상생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도 제정·공포했다.

시는 내년 1월 출범을 목표로 대표이사 등 임원 공모, 창립이사회 개최, 법인설립 허가·등기, 직원 채용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단 규모는 3팀(경영기획, 정책연구, 상생일자리사업) 20여명으로 꾸려진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문예회관장 개방형 직위 해제 공무원 임명 “광주 연고 여자배구단 창단 감사”

내부 현안문제 해결 임시 조치

내년 상반기 개방형 직위 지정

광주시가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와 각종 내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광주문화예술회관장의 개방형 직위를 해제하고 공무원을 임명했다.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조직을 재정비 한 뒤 다시 개방형 직위 관장을 임명할 방침이다.

시는 “다음 달 1일 문화회관장에 하경완(4급) 과장을 전보 인사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성원

출 전 원장이 임기를 6개월여를 남겨두고 사퇴함에 따라 내부 공모로 신임 원장을 선발했다.

하 관장은 시 재산관리팀장, 재원조정팀장, 기획재정부 파견 등을 거친 재정 전문가로, 문화회관 리모델링, 재정 구조 합리화 등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시는 설명했다. 또 광주비엔날레 재단 파견 근무 경험이 있어 지역 문화·예술의 현황을 이해하고 문화·예술인과 소통도 원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다만 내년 상반기에 다시 문화예술회관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할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이용섭 시장, 페퍼저축은행 통장 개설

이용섭 광주시장의 광주 연고 여자프로배구단을 창단한 페퍼저축은행 고객이 됐다.

이 시장은 30일 시청에서 열리는 AI 페퍼스 창단식을 앞두고 페퍼저축은행 광주지점을 찾아 입출금 통장을 개설했다.

이 시장은 “광주 연고 배구단 창단이 쉽지 않았을 텐데 통 큰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시민들에게 배구단이라는 큰 선물을 안겨준 은행에 무엇을 해 줄까 고민하다가 고객이 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장매튜 페퍼저축은행 대표는 “AI 페퍼스와 페퍼저축은행 모두 시민들에게 큰 사랑 받으면서 발전하기를 바란다”며 “광주에 큰 애정을 갖고 시민 삶에 도움이 되는 상품 출시와 경영으로 보답하겠다”고 화답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전남도 소상공인 희망자금 신청 읍면동·교육지원청서 접수 지원

전남도가 오는 10월 29일까지 진행하는 ‘3차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22개 시·군 425개 읍면동과 교육지원청에 접수 지원 창구를 운영한다.

정부가 지난 8월 두 차례 자금 지급을 위한 온라인 간편 신청을 진행한 결과, 6만6144개소가 1169억원을 신청함에 따라 24일 현재까지 6만6080개소 1168억4000만원을 지급했다.

이번 3차 확인지급은 행정 노력으로 제외된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다.

신청자 본인이 직접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와 첨부서류를 발급받아 인터넷 업로드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목포, 여수, 순천, 나주 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4개소를 방문해 관련 첨부서류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읍면동과 교육지원청에서 접수 지원 창구 운영에 들어갔다.

확인지급 신청은 사업주 등이 직접 희망회복자금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현장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한미쇼핑사거리)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大山 프리모 남녀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